

유노윤호, MBC 새 수목극 '맨땅에 헤딩' 주연발탁

입력 2009. 7. 24. 08:33 · 수정 2009. 7. 24. 08:33



[뉴스엔 윤현진 기자]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오는 9월 9일 첫방송되는 MBC 새 수목드라마 '맨땅에 헤딩' 주인공 차봉군 역으로 캐스팅됐다.

유노윤호가 맡은 차봉군은 보잘 것 없고 불운한 삶을 사는 축구 선수로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승리는 물론 '국가 대표'라는 불가능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드라마 '맨땅에 헤딩'은 제목처럼 가진 것은 없지만 가슴이 뜨거운 축구 선수 차봉군이 이뤄내는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를 담아 삼류 인생의 인간 승리와 휴머니즘을 그려낼 예정이다.

남자 주인공으로 낙점된 유노윤호는 지난 7월 19일 연출자와 장장 5시간이 넘는 마라톤 미팅을 통해 톱스타가 아닌 연기에 처음 도전하는 신인으로서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줬으며 대본을 하루 전날 받았으면서도 차봉군이라는 캐릭터를 깊이 있게 이해했음은 물론 뛰어난 집중력과 풍부한 표현력을 선보여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제작진은 유노윤호의 캐스팅에 대해 "유노윤호 역시 차봉군처럼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왔다고 들었다. 유노윤호에게서 최고의 아시아 스타가 아닌 우리가 찾던 차봉군을 봤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노윤호 역시 첫 정극 연기도전에 대해 "차봉군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든다. 대본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느낌을 진솔하게 연기로 표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시아 최고 그룹 동방신기의 리더로 데뷔 이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유노윤호의 첫 정극 연기도전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팬들에게도 폭발적인 관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류 인생의 인간승리 스펙터클 휴먼 드라마 '맨땅에 헤딩'은 곧 대본 연습을 시작,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현진 issuebong@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